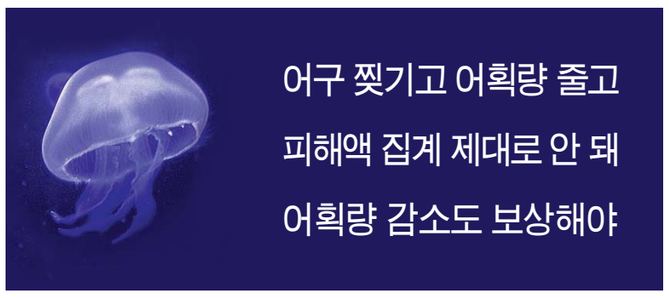
전남 '해파리 피해' 한 해 1천억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로 전남지역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대 피해를 입고 있다. 해파리 때문에 일정 기간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는 등 집계되지 않는 손해를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파리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피해와 해파리 출몰 기간에 고기를 잡지 못한 어민들의 손해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해파리 피해 한 해 수천억원=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파리 대거 출몰했던 2006~2008년 전국에서 한 해 평균 760억~2290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중 해안선이 많고, 해파리 집중 출몰이 잦은 전남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조사는 제대로 된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피해는 더욱 크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는 전국의 어민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해파리가 끼치는 어업피해는 잡힌 물고기의 품질과 가격을 떨어뜨리고, 어구를 파손시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해파리가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잡히면서 그 독성이 물고기에 스며들어, 신선도가 떨어져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물코가 찢어지는 피해도 잦다.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여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됐다.

◇피해 보상은 막막=해파리가 나타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주의보·경보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게 된다.

해파리 피해는 지난 2010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민들은 주의보·경보가 내려진 이후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도 어구 파손만 인정이 되고, 어획량이 줄거나 고기를 잡지 못해 입은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가격 하락과 어획량 감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지자체의 해파리 제거 예산도 해마다 줄고 있다. 해파리가 극성을 부렸던 2009년 이후 해파리 출현이 줄면서 관련 예산도 반토막 났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올 해파리 제거 예산은 지난해 2억4500만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별다른 해파리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해파리 출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예찰과 제거작업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파리떼가 자주 출현하는 원인으로는 최근 온난화 영향에 의한 연안 수온의 상승과 해파리를 잡아먹는 쥐치류와 같은 어류의 감소 등이다"면서 "기상 이변으로 해파리 출현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해파리 나타나면…

어구 철거하고 피해야 쏘였을 땐 빨리 병원에

해파리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또 제때 관계 기관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일단, 해파리가 나타나면 어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철거하고, 수가 늘어나면 해파리떼가 연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그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는 수거용 끌그물을 사용해 분쇄·제거해야 한다.

해파리가 출몰하는 해역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바다 근처에서 해파리가 보인다면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육지로 떠밀려온 해파리라도 절대 만지면 안 되고, 수영을 하던 중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가급적 독성이 있는 촉수보다는 머리 쪽을 살짝 밀어내는 게 낫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빨리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식초로 상처 부위를 씻은 뒤 장갑을 끼고 촉수를 제거해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gma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 지상展

전쟁의 암울함 추상으로 표현

유영국 작 '산·지형'

이보다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산이 있을까. 노랑·초록·남색·회색 등 다섯 가지가 안되는 색으로도, 산이 주는 인상이 짙게 드러낸다. 1959년 작품인 '산·지형'의 화면 전체를 덮는 우울한 색조는 당시 전쟁이 끝난 뒤의 피폐함, 암울함을 드러내는 듯 하다.

유영국의 작품에는 '산'(山) 이라는 묵직한 모티브가 빠지지 않는다. 그가 서정적·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해 추상화한 연작 '산'은 유씨 그림의 상징이다.

특히 작품 속에는 화면 분할과 공간 배치에 대한 관심을 추구해 온 작가의 표현 기법, 산의 풍경을 기하학적 구성으로 추상화하는 독창성이 묻어난다.

자연에 대한 절제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와 한국전쟁기에 출발, 70년대 전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품 속 우울함이 밝고 깊은 색조로 대치되는 등 창작 기법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유영국(1916~2002)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국내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린다. 일본에 유학중이던 1937년 일본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최초의 추상작품을 발표하는가 하면, 김환기 등과 함께 국내 최초의 추상미술 그룹인 '신사실파'를 꾸려 활동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지사직 유지는 도민의 뜻 도정공백 최소화 하겠다"

대선출마 朴지사, 국민위해 봉사할 기회 달라

5·18묘지 참배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출마 공식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1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16일 "대선 출마는 많은 고민끝에 내린 결론으로, 도민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지막까지 너무 늦다고 할 정도로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다"며 민주당에 정권교체를 할 자원이 없고 공백을 메울 힘도 없어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신이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과정은 이달 초 광주·전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박 지사의 대선출마를 지지했으며 70% 가량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지사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선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또 다시 새누리당에 정부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힌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돼 통일의 길이 더 멀어지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이 탐욕과 분노로 갈등이 길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또한 "지사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심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지녀 온 진정한 노력과 생각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선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사로서 오직 도민들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투입했던 것처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다시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탐욕이 넘치고 분노가 치솟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꿔가고, 국민이 평화롭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 출정식을 가진 박 지사는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5·18 묘역을 참배하고 대선후보로서의 결의를 다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군